

# 국내 예체능 계열 학과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요와 한계

## Demand and Limitation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or Arts and Sports Departments in Korea

김아름\*, 동덕여자대학교

Kim, A-Reum, *Dongduk Women's Univ.*

### Abstract

Competitive entrance examination rates in China are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recent influx of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Since the end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revival of China'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igher education, which has always been perceived as elitist, has been democratized with the rise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marketization of universities, resulting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akers. However, the threshold for entering universities in China has become even higher, and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2, the average pass rate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akers was 50.6% for undergraduates (including vocational colleges) and only 27.2% for graduate schools. In addition, the difficulty of finding a job for graduates has become an issue, and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is currently promoting policies to encourage students to enter vocational colleges after high school as a way to revitalize vocational education, it is still not uncommon for many students who want to enter a university to choose to repeat their studies or go abroad. In particular, the burden of admission to graduate schools, which has become very difficult to achieve, has been a major factor in students choosing to study abroad. Meanwhile, the domestic influx of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in the arts, a rapidly growing field in Chin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study examines the demand and preferred major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suggests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Based on the polici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influx of Chinese students to Korea. In addition, i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analyzes the flow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arts and sports in Korea, with the aim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Keywords: Arts and Sports Departments, Arts Majors, International Students, Chinese Students, Demand for Studying in Korea

---

\* rladkfma790@naver.com

## I. 서론

중국은 1994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입한 이후, 교육 제도 역시 국가정책에 따라 시장화되었다. 1998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운영이 되었던 대학은 학비를 받기 시작했고, 이때 많은 민영대학(일명 사립대학)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가오카오(高考, 일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중국에서 고교 입학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예체능 계열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최근에는 예체능 계열의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국내 유학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2004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에서 예술고시(藝術考試, 일명 중국의 예술 실기시험)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매년 중국 내 해당 계열의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술 계열의 주요 3대 문항은 음악, 무용, 미술이다.

2023년 중국의 예술 계열 수험생은 117만 명으로, 전체 수능 정원의 10%를 차지했다. 현재 중국 내 예술계 대학만 112개가 있으며, 중국의 예술 열풍은 2023년 전국 예술 고시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 예술계 고등학교의 한 통계에 따르면 음악, 미술, 연기, 무용 등 4개 전공이 이번 예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 꼽혔다(중국 영화계 아나운서 예술 고시, 2023).

교육부는 앞서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총 네 차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를 발표하면서 2023년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여 국내 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약 2%에서 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2023년 8월에는 ‘글로벌 교육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신규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10대 유학 강국을 도약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3년 글로벌 대학 예비 선정 15교 중 12교가 외

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은 입학 단계에서 대학이 조기 학업 적응을 위해 초기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입학 후 한국어교육 및 학업적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국제화 지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글로벌 역량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국내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 6,892명이다. 2019년 16만 165명에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5만 명대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흐름은 학령인구의 급감, 대학의 재정 적자, 생산인력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국가와 대학이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유학생 유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시사한다. 정부 역시 RISE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활용 방안,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의 협업 방안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등록금, 생활비, 체재비 등을 포함한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는 1,617만 원, 외국인 전문인력 1인당 총 효과는 145.7백만 원(총생산효과 102.1백만 원, 부가가치효과 43.6백만 원)으로 유학생 유치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정부와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03).

중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중 줄곧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초기 유학생 유치의 위기를 겪은 후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및 학습역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대학 적응 실태조사, 한국어 능력 수준, 교육 만족도 분석 등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김아람, 2019; 류원몽, 2022; 리첸첸, 오인수, 이수경, 2016; 서지연, 2009; 엄혜경, 2003; 채소영, 2018; SIYU, 김영미, 2020).

중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여 유학을 오기까지의 유입 요인을 다루는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는데(안인해, 2009; 최봉환, 2020; 하연섭, 이주현, 신가희, 2015; ZHANG JIAZHEN, 2020), 그 중 최봉환

(2020)의 연구가 중국인 유학생의 유입 및 송출 원인, 유학생 유치 방안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방향성과 가장 부합하지만, 중국의 정부 정책, 즉 대학 정책과의 연관성은 다루지 않았다. 안인혜(2009)는 해외 유학과 국가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찾았으나 14년의 시간이 흘러 최근 신규 정책으로 인한 유학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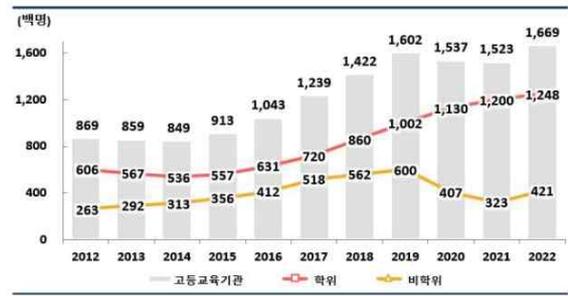
반면, 중국에서는 중국의 정부 지침 및 대학 교육 개혁 정책 관련 연구가 줄곧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대일로’와 한국 유학과의 상관관계,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주제로 다룬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서상운, 마승남, 왕우, 2019; 서주주, 여요, 2019; 왕휘, 2022; 장홍효, 2021; 종병립, 2023). 한국에서도 이경자(2006)가 중국 대학교육 개혁의 동향을 다룬 바 있으나 역시 17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을 주로 다룬 내용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제시하는 정책을 근간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근본적인 유입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II.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분석

2022년 한국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6,892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611명(9.6%)이 증가했다. 그중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만 4,803명(74.8%)으로 전년 대비 4,785명(4.0%),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4만 2,089명(25.2%)으로 전년 대비 9,826명(30.5%)이 증가했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40.4%(6만 7,439명)로 전년 대비 0.1%(91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출처: 교육부)

그림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베트남 유학생 수가 22.7%(3만 7,940명)로 많았고,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5.2%(8,608명), 몽골 4.4%(7,348명), 일본 3.4%(5,733명), 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학생 수가 2011년에 8만 9,537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근 3년간(2012년~2014년)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중국인 유학생이 1만 599명이나 줄어 전체 유학생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주로 학위과정에 감소 분포가 집중되었으며, 이 시기 학위과정 중국인 유학생만 1만 3,423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1년부터 유학생 입학 자격 조건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으로 강화되고, 국제화역량 인증제 도입 등 유학생 관리 강화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의 유학생 관리 강화 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데다가 중국의 경제 수준 상승으로 한국보다는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또한 당시 한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외국 유학생에게까지 미쳐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인 학생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다수의 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2019년 COVID-19 이후 다시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2012년의 감소 추세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 기존에는

표 1.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출처: 교육부, 단위: 명)

연도	합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기타
'22년	166,892	67,439(40.4)	37,940(22.7)	8,608(5.2)	7,348(4.4)	5,733(3.4)	39,824(23.9)
'21년	152,281	67,348(44.2)	35,843(23.5)	8,242(5.4)	6,028(4.0)	3,818(2.5)	31,002(20.4)
'20년	153,695	67,030(43.6)	38,337(24.9)	9,104(5.9)	6,842(4.5)	3,174(2.1)	29,208(19.1)
'19년	160,165	71,067(44.4)	37,426(23.4)	7,492(4.7)	7,381(4.6)	4,392(2.7)	32,407(20.2)
'18년	142,205	68,537(48.2)	27,061(19.0)	5,496(3.9)	6,768(4.8)	3,977(2.8)	30,366(21.4)
'17년	123,858	68,184(55.1)	14,614(11.8)	2,716(2.2)	5,394(4.3)	3,828(3.1)	29,132(23.5)
'16년	104,262	60,136(57.7)	7,459(7.2)	1,588(1.5)	4,456(4.3)	3,676(3.5)	26,947(25.8)
'15년	91,332	54,214(59.4)	4,451(4.9)	1,066(1.2)	3,138(3.4)	3,492(3.8)	24,971(27.3)
'14년	84,891	50,336(59.3)	3,181(3.7)	754(0.9)	3,126(3.7)	3,958(4.7)	23,536(27.7)
'13년	85,923	52,317(60.9)	3,013(3.5)	628(0.7)	3,904(4.5)	4,503(5.2)	21,558(25.1)
'12년	86,878	57,399(66.1)	2,458(2.8)	546(0.6)	3,799(4.4)	4,172(4.8)	18,504(21.3)
'11년	89,537	60,935(68.1)	2,332(2.6)	521(0.6)	3,700(4.1)	4,645(5.2)	17,404(19.4)
'10년	83,842	59,490(71.0)	1,919(2.3)	427(0.5)	3,335(4.0)	4,090(4.9)	14,581(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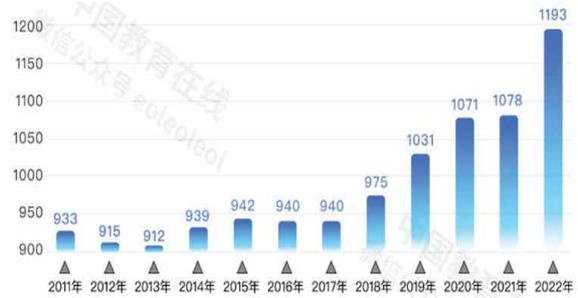
표 2.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출처: 교육부, 단위: 명)

연도	합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기타
'22년	124,803	60,521(48.5)	26,915(21.6)	8,249(6.6)	4,800(3.8)	2,430(1.9)	21,888(17.5)
'21년	120,018	59,774(49.8)	24,984(20.8)	7,658(6.4)	4,916(4.1)	2,022(1.7)	20,664(17.2)
'20년	113,003	59,177(52.4)	19,160(17.0)	7,441(6.6)	5,230(4.6)	1,932(1.7)	20,063(17.8)
'19년	100,215	56,107(56.0)	13,221(13.2)	5,230(5.2)	4,569(4.6)	1,812(1.8)	19,276(19.2)
'18년	86,036	51,790(60.2)	7,801(9.1)	3,147(3.7)	3,457(4.0)	1,697(2.0)	18,144(21.1)
'17년	72,032	44,606(61.9)	4,698(6.5)	1,721(2.4)	2,723(3.8)	1,601(2.2)	16,683(23.2)
'16년	63,104	38,958(61.7)	3,465(5.5)	1,083(1.7)	2,279(3.6)	1,568(2.5)	15,750(25.0)
'15년	55,739	34,887(62.6)	2,579(4.6)	707(1.3)	2,145(3.8)	1,461(2.6)	13,960(25.0)
'14년	53,636	34,482(64.3)	2,148(4.0)	481(0.9)	2,236(4.2)	1,416(2.6)	12,873(24.0)
'13년	56,715	38,394(67.7)	2,153(3.8)	419(0.7)	2,490(4.4)	1,367(2.4)	11,892(21.0)
'12년	60,589	43,951(72.5)	1,889(3.1)	384(0.6)	2,631(4.3)	1,347(2.2)	10,387(17.1)
'11년	63,663	47,725(75.0)	1,940(3.0)	387(0.6)	2,515(4.0)	1,430(2.2)	9,656(15.2)
'10년	60,000	45,944(76.6)	1,667(2.8)	343(0.6)	2,196(3.7)	1,350(2.3)	8,500(14.2)

학부 감소에 따른 영향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학위과정을 위해 유학을 오는 중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비학위과정인 한국어 부설 교육기관(어학당) 등이 중국 내 직접 개설되어 한국 유학 예비반의 형태로 일정 기간 어학과정 수료 후 국내 학위과정으로 연계가 되었던 점 등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의 대학 입학 정원 제한 제도와 연관성을 가진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대학입시 평균 합격률은 50.64%로 집계되었다. 이 중 명문대 평균 합격률은 23%, 일반대 40%, 전문대학은 37%이며, 총 1,193만 명의 지원자 중 920만 명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으며, 이 중 150만 명만이 명문대 입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입시의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 재수생만 수능 응시자 수의 근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



(출처: 중국교육부, 단위: 만 명)

그림 2. 중국 내 수능 응시자 수



(출처: 중국교육부, 단위: 만 명)

그림 3. 중국 내 수능 입시 현황

황이다.

2020년 전국의 일반대학과 직업전문대학 등은 총 967만 4,500명을 모집했으며 그 중 학부 443만 1,200명, 고등전문대학 524만 3,300명을 모집하여 실제 학부 합격률은 41.37%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총 1,001만 3,200명을 모집하여 모집 규모는 전년대비 확대되었지만, 그중 일반대학 444만 6,000명, 직업대학 4만 1,400명, 고등전문대학 524만 5,800명을 모집하여 일반대학의 합격률은 41.6%로 여전히 40%를 웃돌며 높은 문턱을 선보였다. 2022년의 모집인원은 총 1,014만 5,400명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했다. 이 중 일반 학부 모집은 467만 9,400명으로 전년 대비 5.25% 증가했으며, 전문직(전문대) 모집은 538만 9,800명, 직업학부(職業本科) 모집인원은 76,200명으로 전년 대비 84.39% 증가했다.

중국의 대학은 규모와 역량에 따라 대학을 본과 1차(一本), 본과 2차(二本), 본과 3차(三本), 전문대학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본과 1차는 일반적으로 중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_가오카오(高考)와 중국의 대학 구조)

그림 4. 중국 공립대학과 민영대학 개념도

국가가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985공정 및 211공정)에 선정된 대학을 말하며, 중점대학(重點大學)이라 칭하고, 이는 중국에서 소위 명문대로 통한다. 본과 2차는 명문대를 제외한 기타 국공립대학(公辦院校)이 주로 해당된다. 기존에는 국공립대학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던 중국 대학이 1994년 국가정책에 따라 대학도 시장화되면서 많은 민영대학이 설립되었는데, 민영대학은 설립 주체 및 운영방식에 따라 정부기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대학과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독립대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비독립대학이 한국의 사립대학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설 민영대학이 본과 3차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본과 3차라는 용어 대신 민영대학이라고 별도로 구분하여 칭하고 있다. 즉, 주요대학이 주로 속해 있는 국공립대학을 주로 본과 1차와 본과 2차로 구분하고 그 밖의 대학은 민영대학, 전문대학으로 불린다.

2022년 전국 일반고(사립 포함)의 입학률은 60%, 공립은 약 50%이며, 중국의 주요 일선 도시(一線城市)의 평균 합격률은 베이징(北京)이 85%, 상하이(上海) 64%, 선전(深圳) 55%, 광저우(廣州) 4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밖의 기타 신규 일선 도시(新一線城市)인 창사(長沙)에서 76%로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수능시험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달리 중국은 도시별로 명문대 입학의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이 책정된 도시는 전국 수능 평균 평점보다 낮더라도 대학 입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도시는 수능 평

균 평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대학 입학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주로 재수를 선택하거나 해외 유학을 고려하게 된다.

중국의 일선 도시에서는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권의 유학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아시아권에 대한 선택지로는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된다. 아시아권 유학 수요는 경제 수준이 일선 도시에 미치지 않는 해외 유학이 가능한 경제 수준을 갖춘 학생들의 주요 선택지가 되며, 주로 이선 도시(二线城市)나 삼선 도시(三线城市)의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 III.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

고등학교부터 좁아지는 중국 학생들의 진학 고민은 상위 과정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중국의 전국 수능 응시자의 평균 절반 정도만이 대학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대학원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2015년 근 40%에 달하던 중국 내 대학원 합격률이 최근 2022년도에는 27.2%로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학원생 응시자 수 증가에 따라 모집인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응시자 수에 비하면 확대된 모집인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은

표 3. 2023년 중국 내 대학원 입시 현황

(출처: 중국교육부)

연도	응시자 수 (단위: 만 명)	전년대비 증가율	모집인원 (단위: 만 명)	합격률
2023	474	3.7%	—	—
2022	457	21.2%	124.2	27.2%
2021	377	10.6%	117.7	31.2%
2020	341	17.6%	110.7	32.5%
2019	290	21.9%	91.7	31.6%
2018	238	18.4%	85.8	36.1%
2017	201	13.6%	80.6	40.1%
2016	177	7.3%	66.7	37.7%
2015	164.9	-4.1%	64.5	39.1%

석사와 박사로 구분되며, 합격자 수는 이미 별도의 시험 없이 추천된 우수 학생도 포함되기에 대학원생 합격률로만 계산하면 그 합격률은 더욱 낮아진다.

중국의 입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험생들은 높은 입시 경쟁을 피해 해외 유학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수요를 살펴보면 영어권이 가장 많았고 아시아권이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 대학 랭킹이 꼽힌다. 이는 상위 랭킹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귀국 후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학 추이를 살펴보면 QS랭킹 상위권에 속해 있는 한국의 많은 대학들의 예술계 전공에 중국인 석·박사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3년 발표한 QS랭킹 500위 안에 든 국내 주요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41위), KAIST(56위), POSTECH(71위), 연세대학교(76위), 고려대학교(79위), 성균관대학교(145위), 한양대학교(164위), 경희대학교(332위), 세종대학교(436위), 중앙대학교(494위), 이화여자대학교(498위), 서강대학교(509위)가 있으며,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선호하고 실제 많은 예체능 계열의 중국인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와 세종대학교의 유학생 모집 요건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원서, 학사 및 석사학위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포트폴리오 등 작품 성과물, 지원자와 부모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석사과정 제출 서류는 석사학위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의 어학 조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TOPIK 말하기, TOPIK IBT 중 택 1) 4급 이상의 어학 성적 또는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4급 수료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도 교수의 '한국어 기준 면제 요청서'를 취득하게 되면 어학 성적없이 입학이 가능하며, 합격자는 첫 학기에 ERICA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기존	변경(2024학년도 1학기부터)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
	2.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4급 수료 이상인 자
2.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4급 수료 이상인 자	3.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말하기 4급 이상 소지자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4급 이상 소지자

(출처: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그림 5.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확대

세종대학교의 순수 외국인 전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학사 및 석사학위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표, 연구업적 목록,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등 작품 성과물, 지원자와 부모의 여권 사본, 호구부 공증본, 가족관계 증명서, 은행예금잔고 증명서, 학력조회 동의서, 장학금 신청 서류(해당자) 등이 있으며, 석사과정은 마찬가지로 일부 서류(석사학위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표, 연구업적 목록,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가 간소화되며 나머지 서류는 동일하다. 세종대학교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의 어학 조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의 어학 성적 또는 해당 학과 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예체능 계열 중 음악학과에 한해서 이중언어 과정을 개설해 별도의 공인어학능력 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 두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의 문턱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2024년 전기 입시부터 신규 확대되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어학 조건은 한국어능력시험을 TOPIK에 국한되었던 것이 말하기 시험과 IBT 시험도 인정범위에 포함되어 확대되었으나 실제로 어학 성적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 지도 교수의 '한국어 기준 면제 요청서' 지침이 있고, 세종대학교 역시 지도 교수의 추천 전형이나, 이중언어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두 대학을 사례로 들기는 했지만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국민대학교와 상명대학교 등 기타 많은 대학에서도 이와 같이 어학 성적을 별도로 요하지 않거나, 그 기준을 낮춰 유학생의 어학 부

담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원 절차가 간소하며, 세부 전공의 다양성을 두고, 전적 대학에 대한 전공 제한을 두지 않아 대학원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과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편의 시설과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는 점도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에 부합했다.

한편 졸업요건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위 논문은 중요시하면서도 소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꼈다. 국내 학술지(KCI) 등이 중국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뿐더러 한국어 능력의 한계 등으로 실제 소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입학한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필자 역시 학생들로부터 전공 실기 포트폴리오로 소논문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접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은 전공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데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적인 제한과 한국인 학생 섭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국민 유학생끼리의 공동작품집을 제작하기를 희망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가 잘 반영되어 있는데, 예체능 계열 대학원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선택 요

인을 살펴보면 주로 입학 시 한국어 어학 성적 면제 조건, 대학의 입학 절차 간소화, 중국인 학생 수,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다음으로 지인의 해당 학교 수학 경험과 전공에 대한 세부 전공의 개설 상황을 고려했다. 반면 장학금과 학교의 지명도에 대해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소이란, 2022).

2021년 국내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 9,421명(석사 2만 5,169명+박사 1만 4,252명)으로 이 중 예체능 계열 유학생은 5,991명이었다. 최근 2022년 국내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인은 4만 3,815명(석사 2만 6,923명+박사 1만 6,892명), 이중 예체능 계열 유학생은 7,109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국내 대학원에 입학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총 4,394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1,118명이 예체능 계열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대비 증가 인원의 25%에 해당한다. 국내 예체능 계열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응용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 대비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전공으로는 음악(456명 증가), 응용예술(383명 증가), 무용·체육(114명 증가) 순으로 많았다.

표 4.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출처: 교육부, 22 한국교육개발원,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고등교육기관	83,842	91,332	153,695	152,281	166,892	
학위과정	소계	60,000	55,739	113,003	120,018	124,803
	전문학사	3,267	1,595	6,800	9,057	9,928
	학사	40,442	31,377	68,051	71,540	71,060
	석사	12,480	16,441	24,996	25,169	26,923
	박사	3,811	6,326	13,156	14,252	16,892
비학위과정	소계	23,842	35,593	40,692	32,263	42,089
	어학연수생	17,064	22,178	32,315	23,442	27,194
기타연수생	6,778	13,415	8,377	8,821	14,895	

주 1.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 비학위과정의 기타연수생에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포함  
 3. 교육과정 공동운영생은 2014년도부터 별도 구분되었으며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에 관계없이 비학위과정(기타연수생)에 포함

중국 정부와 대학은 일류 대학 정책에 따라 석·박사 소지자 교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면서 우수 교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대학 내 재직 중인 강사나 교수들이 석·박사에 입학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 내 대학원 입시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애초부터 한국 유학으로 눈을 돌리는 유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이들은 빠

표 5. 예체능 계열 전공별 현황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단위: 명)

구분	총계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2021년	5,991	1,825	1,608	985	450	108	1,015
2022년	7,109	1,878	1,991	1,099	542	128	1,471
전년대비 증가인원	1,118	53	383	114	92	20	456

른 시간에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교육 이념과 목표 등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 한국 유학을 선호하는 편이다.

#### IV. 한계 및 대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가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높은 입학 장벽과 대학의 평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단계의 입학 장벽과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유학생 유치 관문의 혁신적 확장에 주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대학과 정부의 유학생 확대 정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유학생에 비해 학업 적응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조사에 의하면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중 어려운 점으로 ‘강의 내용 이해(25%)’와 ‘수업 시간 발표(23%)’를 가장 많이 꼽았다(교육부, 2023).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은 강의와 논문 지도를 하는 해당 학과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예체능 계열의 어느 실기 교수는 외국인 박사생의 실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학생들 역시 통역자 없이 수업을 듣거나 교수님과 면담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또한 해당 학과에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교직원 없이 학과의 중요한 공지사항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졸업요건의 정보 등이 전달되지 않아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거나, 급하게 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러한 유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 및 학과에서 느끼는 부담감 등의 척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석·박사급 해외 우수 인재들이 높은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 취업 또는 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 정보 및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학비자 활동의 제한으로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른 것도 원인이지만 반대로 해외 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국내 유학생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양 자간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업의 석·박사 유학생 채용 수요조사(UST-KOITA)에 따르면, 국내 연구인력 부족 및 해외 진출 업무 활용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비율은 60%로 나타났으나 실제 채용은 24%에 불과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꼽히는 근본적인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여 유학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팽창에 힘을 쏟으면서도, 대학 내 한국어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입학 후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은 국내 취업 및 정주에도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외국인 유치의 선두 주자이자 오랜 경험으로 안정적인 유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수 대학들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그 대안을 가늠하고자 한다.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인증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 중 중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 꼽히는 한양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 확대로 인해 연간 400억 원의 등록금의 재정 수입이 창출되고, 각종 평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지만, 이에 동반되는 관리 부담에 대해, 한양대는 국제화의 키워드를 ‘감동 받게 하라’에 중점을 두고, 중국어 전담 직원 배치, 중국인 전용 상담센터 운영, 한양대 자

체 취업박람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 개선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중국 내 설치한 한양중국센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유학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한양대 유학생 동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반대로 유학생 동문을 본교로 초청하여 중국인 선배들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2023년 현재 한양대는 7,548명의 중국 유학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중국 유학생만 1만 명이 돌파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유학생에 대한 견고한 관리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유학생 전용학과 또는 학부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고려대학교는 내년 2024년부터 외국인 전담학부인 글로벌자유학부를 신설한다. 해당 학부는 2학년부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외국인 전용 광역선발(Open Major) 제도이며, 1학년 때에는 주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경희대학교 역시 내년부턴 이전에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과로 운영되던 학과를 정원의 유학생 전용학과로 개편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많은 대학에서 초기 유치에 위기를 겪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곳에 외국어가 능통한 교수나 직원을 배치하고, 현지어 상담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요에 따른 현지어 지원을 강화하였고, 최근에는 한국어 특강 등을 개설하여 TOPIK 취득자 비율을 높이거나, 외국인 전담 학과나 학부에 한국어 수업을 강화하는 등 유학생들의 언어적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실제 유학생의 국내 수학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한국어능력 시험 취득자 증가 등 유학생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 V. 결론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악화 현상으로 현재 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2년 이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인하 또는 동결되어 그 누적 손실액이 13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입학금까지 폐지되는 바람에 대학의 재정적인 부담은 더욱 커진 실정이다. 인구 절벽에 따라 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게 되고, 주변의 지역 상권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국제화가 대두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고, 대학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2년 한국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6,892명으로 2000년대 초 유학생 유치 팽창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줄곧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단연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약 40%가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3% 이상이 정규 학위 과정, 특히 39%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속해 있다.

중국 내 입시경쟁률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입시제도가 부활한 이래로 줄곧 엘리트화로 인식되었던 고등교육이 민영대학의 등장 이래로 대학의 시장화와 함께 대중화 바람이 일었고, 그 결과 수능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직업교육 강화 정책으로 중국 내 대학 입학의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자의 평균 합격률은 학부 50.6%(전문대 포함), 대학원은 27.2%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의 취업난이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다. 2022년 봄, 베이징(北京)의 공무원 채용 결과에서 석·박사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와 큰 차이가 없는 말단 공무

원 청관(城管, 일명 도시관리)직 채용 명단에도 중국 명문대 석·박사생뿐 아니라 해외 명문대학원 출신의 쟁쟁한 학력 소유자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 직업교육이 크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학력 인플레이와 취업난으로 중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기업들은 넘치는 졸업생들의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직업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전문대학 입학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대학의 입학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은 재수를 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늘구멍보다 좁아진 대학원의 입학 부담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초기 중국 유학생 유치의 다음 스텝으로 국적의 다각화를 시도하던 많은 대학에서 최근 우수 유학생 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유학생 유치 경쟁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공급하는 중국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한데, 이는 국내 대학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역 소멸의 위기, 기술경쟁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과 정부가 유학생의 수요에 맞게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이들의 유학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이 관측되고 있다. 기존의 유학생 확대 정책이 유치 및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수 해외 인재를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정주를 장려하면서, 각종 취업 및 정주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관리와 지원 부실로 인해 반한파(反韓派)를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의 대학 학위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들이 해외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대학에서는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유학생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정부

의 학력 인플레이션 방지 및 중국 내 직업전문학교 집중 양성 등을 목적으로 일반대학의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중국의 해외 우수 인재 배양 제도에 따라 국외 유학 경험이 중국 내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COVID-19 이후로 주춤했던 학위과정을 위한 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수요가 향후 더욱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03). 글로벌 교육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 김아람(2019).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별 언어 학습 전략 분석**. 국민대학교대학원, 석학위논문.
- 류원봉(2022).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리첸첸, 오인수, 이수경(2016).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할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1).
- 안인해(2009). 중국 해외유학의 전개과정과 국가정책. **중국학논총**, 25.
- 왕휘(2022). 입시제도 개혁 10년. **중국고사**, 10.
- 이경자(2006). 중국 대학교육 개혁의 동향. **비교교육연구**, 16(2).
- 서상운, 마승남, 왕우(2019).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와 대안. **청도과학기술대학학보**, 사회과학편, 35(2).
- 서주주, 여요(2019). 우리나라 대입 개혁 연구의 인기 주제와 그 발전. **교육과 시험**, 2.
- 서지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우석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이란(2022). 수도권 대학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문화와예술연구**, 20.
- 엄혜경(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 서울 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국영화계아나운서예술고시 보도자료(2023). ('藝考熱不減,

- 2023年全國藝考報名人數創新高!, <https://baijiahao.baidu.com/s?id=1767300096554049771&wfr=spider&for=pc>
- [원문] : 自從中國開始多元化的高等教育招生製度改革以來, 藝術類考試便成為了備受矚目的一項。申報藝考的人數持續成長, 近日, 發布的數字再次證實: 「藝考熱」並未見下滑趨勢。2023年的全國藝考報名人數創下了歷史最高紀錄。... 在2023年的全國藝考中, 音樂、美術、表演、舞蹈等四個專業再次成為此次藝考中最為火熱的專業。
- 장홍효(2021). '일대일로'를 배경으로 한 한국 유학생 교육의 경험적 연구 및 시사점. 대외경제대학, 석사학위논문.
- 종병립(2023). 입시 제도 개혁의 원인, 하북사범대학학보. 25(6).
- 최봉환(2020).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과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인문과사회**21, 11(5).
- 채소영(2018), **한국무용 전공 중국유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연섭, 이주현, 신가희(2015).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교육재정연구**, 24(3).
- SIYU, 김영미(2020).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조사. **한국무용학회지**, 19(4).
- ZHANG JIAZHEN(202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유학 선택요인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孔晴, 崔娟華(2019). 中國留學生留韓動機研究. 教育教學論壇, 16.)
- (徐柱柱, 餘瑤(2019). 我國高考招生改革研究的熱門主題及其演進. 教育與考試, 2.)
- (徐祥運, 馬勝男, 王羽(2019). 我國高考招生製度存在的問題及其解決途徑. 青島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35(2).)
- (張紅曉(2021). 「一帶一路」背景下韓國留學生教育的經驗研究及啟示. 對外經濟貿易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輝(2022). 考試招生製度改革這十年. 中國考試. (10).)
- (鐘秉林(2023). 考試招生製度改革的動因、進路與方向. 河北師範大學學報. 25(6).)
- <https://kess.kedi.re.kr/index>(교육통계서비스)
- <https://edpolicy.kedi.re.kr/frt/main/main.do>(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 <http://www.stats.gov.cn/>(중국통계청, 國家統計局)
- <http://www.moe.gov.cn/>(중국교육부, 中國教育部)
- <http://www.cscse.edu.cn/>(중국유학포털, 中國留學網)
- <https://www.gaokao.cn/>(중국교육포털, 中國教育在線)
- <http://www.rednet.cn/>(중국종합포털, 紅網)
- <http://www.csc.edu.cn/>(국가유학포털, 國家留學網)
- <http://news.xinhuanet.com/>(종합뉴스포털, 新華網)

---

## 국문초록

---

중국 내 입시경쟁률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입시제도가 부활한 이래로 줄곧 엘리트화로 인식되었던 고등교육이 민영대학의 등장 이래로 대학의 시장화와 함께 대중화 바람이 일었고, 그 결과 수능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 내 대학 입학의 문턱은 더욱 높아져 2022년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자의 평균 합격률은 학부 50.6%(전문대 포함), 대학원은 27.2%에 불과했다. 게다가 졸업생들의 취업난까지 이슈가 되면서, 현재 중국 정부는 직업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전문대학 입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대학의 입학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은 재수를 선택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바늘구멍보다 좁아진 대학원의 입학 부담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사이 중국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예체능 계열 석·박사생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국내 수학 중인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와 선호 전공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계와 대안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제시하는 정책을 근간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근본적인 유입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학에서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예체능 계열의 중국인 석·박사생의 한국 유학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 예체능 계열, 예술 계열, 국내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 한국 유학 수요

---

논문투고일: 2023.10.30  
논문심사일: 2023.11.14  
심사완료일: 2023.11.27